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인가?

‘보배의 장소(寶所)’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城)이 있었느냐? 만약 “이곳이 이미 화성(化城)이라면,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의 장소는 가리킬 수 없다.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의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 거리가 얼마라고 정해서 말할 수 없으니, 오로지 당체에 계합할 뿐이다.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멀고 가까움이 없는 가까움이다. 동시에 멀다면 우주보다도 멀고, 가깝다면 눈[眼]보다도 가깝다. “자기 안에 있다.”고 전해 들었어도, 이치로만 알고 실제로 알지 못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찾고 구하게 된다.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사실을 알면, 찾고 말고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 정리가 이루어진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찾아야 한다.”는 어지러움을 범할 수밖에 없다.

천제(關提)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二乘)들은 불과(佛果)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선근(善根)이 끊긴 천제라 한다.

“일천제(一闡提)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열반경》에서는 일천제도 종국에는 성불한다고 했다. 천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부처될 수 없다.”며, 불과(佛果)를 믿지 않는다. “누구나 부처될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철두철미한 계합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데, 천제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살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승과 소승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法性)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선근이 있는 천제’라 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聲聞)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을 연각(緣覺)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개 법(法)에 있어서는 깨달은 것이 많으나, 마음(心)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열공 동안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가 될 수는 없다.

본래의 부처는 수행을 가지하지 않는다. 수행하는 모습이 있는 동안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수행한다.”는 생각만 불러 일으켜도 어리석어진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버리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흠덩이나 쫓는 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계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6>



범이사 주지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가까움이 없는 가까움이다

멀다면 우주보다 멀고

가깝다면 눈보다도 가깝다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버리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흠덩이나 쫓는 개’ 꼴 된다

꼭지가 말라 비틀어지면

살짝 건드려도 툭 떨어진다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익지로 따면 꼭지 툭 떨어져

계속 흔적을 남기고 다닌다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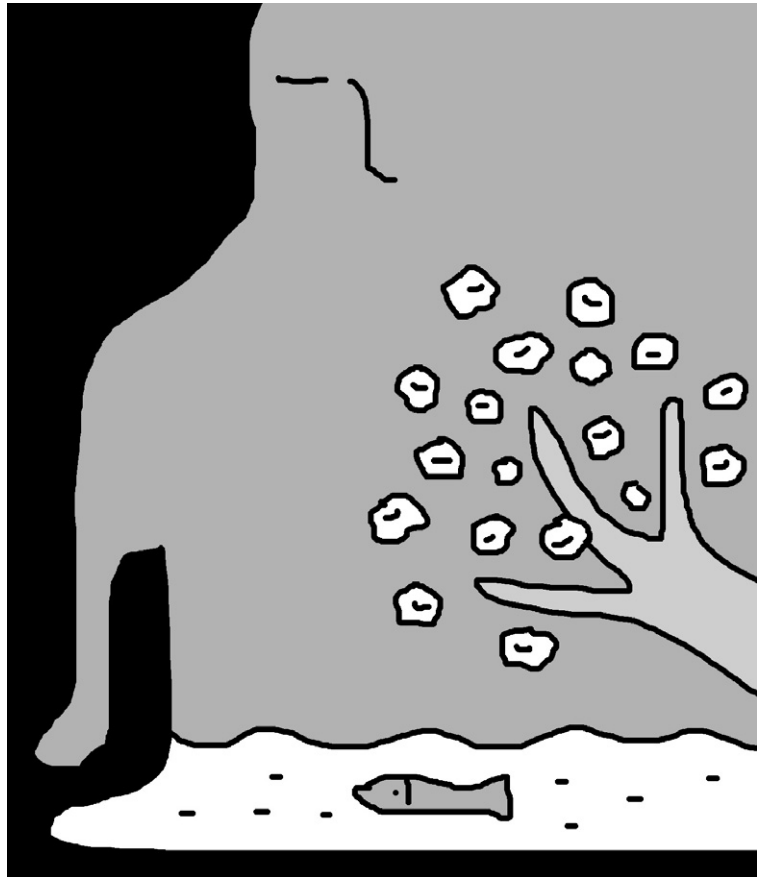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돈오하는 순간에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뿐인 것을, 사람들은 늘 찾는다 한다. 꼭지까지 말라비틀어지면, 살짝만 건드려도 툭 떨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익지로 따려고 탐한다. 그러니 꼭지가 툭 떨어져서 계속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경계로 인해 마음이 장애되고, 현상(事)으로 인해 본체(理)가 장애되고 있다. 그래서 늘 경계로부터 도망침으로써 마음을 편히 하고자 하고, 현상을 물리침으로써 본체를 보존하고자 한다.

흔히 “눈앞에 어른거리는 경계가 다 마음을 방해하는 그림자여서, 없애버려야 내 마음이 편하고 분별을 덜 할 것이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조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아직도 이런 그림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각찰(覺察)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부가 되었다면,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고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없애려 해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공부가 안 된 것이다.”며 스스로 분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양금이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명(無明)과 합쳐져서 다시 태어날 때 허물을 뒤집어쓰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내려놔서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

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공부가 안 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 돈오할 생각이 없이 비우는 것에 몰두한다. 하지만 공부된 사람은 그러려니 하며 점검해 마칠 줄 아는 여유와 힘이 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서도, 마음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무상(無相)을 눈뜨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에 나아갔기 때문에, 경계든 마음이든 다 버릴 줄 안다. 불법을 눈뜬 자가 아니면, 보살이 공부하는 모습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불보살만 들을 뿐, 보살지건을 눈 열지 못한 제자들은 설사 해안을 눈 열었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업식이 적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내려놓는 순간에 그 맛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생각에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어지러워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66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량수경)

원의 크기와 강렬함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그릇’이라는 말을 쓴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라든가,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때 ‘그릇’에 해당하는 말을 불교에서 찾아본다면, ‘근기(根機, 根器)’라는 말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의 의미를 지닌다. 도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원(願)’의 크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부처와 중생을 나눌 수 있다. 부처님의 원은 그 크기부터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겨우, ‘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가족, 나의 나라... 가족이 있는 재가자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다. 모든 중생을 다 고려대상으로 넣고 있는 것이다. 그 뚜렷한 예를 《무량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法藏)비구는 48가지 원을 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18원을 들어보기로 하자.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서 (일념) 내지는 심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 역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보라, 이 부처님의 원들이 원의 스케일이 이렇다. 일단 시방세계의 중생들 모두를 다 생각한다. 원은 이정표이자, 등대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힘을 원은 갖고 있다. 우리가 해매는 것도 원이 없어서이거나, 원이 약해서이다. 원이 굳건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원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법장비구는 이리이러한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배수진을 친다. 그만큼 강렬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성불, 동시구제

48원 중에서 제18원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담론이 이루어져 왔다. 제18원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바로 정토신앙의 역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

서 나는 그런 방향을 더 천착하고 싶지는 않다. 주목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법장비구의 48원에는 부처와 중생의 동시성불, 즉 동시구제가 담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미타불이 되는 순간은 그 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해서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이 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의 모든 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상구보리),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하화중생)”라는 말을 시간적 선후관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장비구의 원에 따르면,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다. 성불과 구제 사이에는 결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다.

법장비구의 이 원들에서는, 법장비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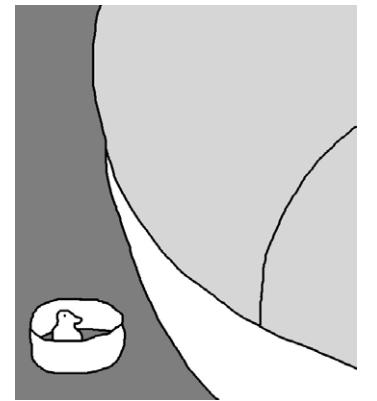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아미타불이 되는 성불과 모든 중생들이 그의 국토에 가서 태어날(왕생) 수 있는 구제의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장비구의 성불과 우리 중생의 구제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말하자면 동시성불이며, 동시구제인 것이다.

이 법장비구의 원들에서 동시성불과 동시구제를 읽어낸 분들이 신란(親鸞, 1173-1262)스님이나 잇켄(一蓮, 1239-1289)스님이다. 이 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법장비구가 아미타불로 성불했던 바로 그 순간, 우리 중생의 왕생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安心)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극락에 갈 사람들이다.

종래 우리는 정토신앙을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장비구의 48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성과 사회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중생에 대한 사랑이 낳은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생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oy.co.kr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마음의 안락과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수행

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은
바라밀!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십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저 / 정병스님 역
신국판 | 흑백 | 388쪽 | 13,8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고통의 소멸과 니르바나에 이르는 10가지 수행법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님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밀이다. 수행의 성취는 열심이란 한 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야만 이뤄진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태국의 명상수행자인 Sujin Boriharnwanaket는 나이가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승(小乘)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붓다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김현 성전사 www.junmyeong.com 054-434-9090
비움과소통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1차 교육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2차 교육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3차 교육
■ 자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4차 교육
[우불 김철회 박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낸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명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